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이자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首座)로 꼽히는 대원스님의 치열한 수행 여정과 지혜의 가르침을 담은 법문집이 출간됐다.

충남 공주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설한 주요 법문들, 대선사들과 나눈 문답 기록 등을 모두 담은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다.

이 책은 1956년 만 14세에 출가해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온 대원 대종사의 치열하고 올곧은 수행 여정과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고 수행을 지도하며 가르침을 펼쳐온 대원 스님은 책갈피마다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려는 깨우침의 길을 전한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경북 상주 출생으로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만 6세에 사미계를, 만 20세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5년 의정부 쌍용사 전강스님 회상에서 수선안거 한 이래 1986년까지 전국의 선원에서 효봉, 금오, 고암, 경봉, 성철스님 등 당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았다.

마음의 어둠을 禪으로 풀다

조계종 수좌 대원스님이 전하는 수행과 지혜의 가르침 한국불교 살아있는 큰 스승 "스스로 마음·세상 밝히라"

스님은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공주학림사를 세우고 1995년 출가자를 위한 오등선원을 열었다. 100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으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동안 100일 정진에 이어 지난 2017년 2월부터 3년간 잡도 지지 않고 하루 18시간 이상의 철야 용맹정진 결사를 진행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가풍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1년에는 재가자를 위한 오등 시민선방을 개원해 잠선 대중화에 기여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처음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지내고 2013년 조계종 원로회의에 선출됐으며 현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고암문도회 문장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법어집에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원 대종사가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펼친 법문은 물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설한 수많은 법문들 가운데 31편지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스님 등 대선사, 고승들과 주고받은 문답, 법거랑(法擧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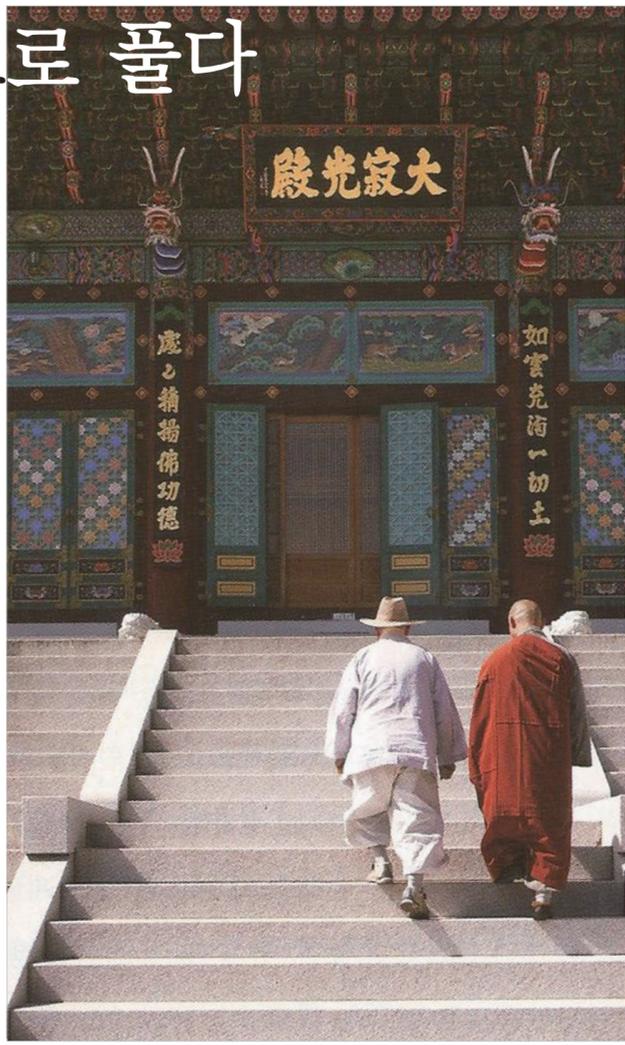


대원 스님

기록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 어린 나이에 출가해 5년간 고된 공양주 생활을 군말 없이 해낸 일화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불광출판사. 440쪽. /이연수 기자



세책 나왔어요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 1967년 펴낸 '탈 없는 원숭이'로 명성을 얻은 동물행동학자 테즈먼드 모리스가 예술가로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을 다룬 책. 2018년 출간된 책을 이한음의 번역으로 소개한다. 을유문화사. 424쪽.



◇우리가 선택한 가족=미국 메인대 사회학과 에이미 블랙스톤 교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추세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저자는 '아이 없는 삶'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한다. 문학동네. 372쪽.



◇마음의 주인=베스트셀러 작가 이기주가 마음의 문제를 탐구한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라는 화두를 던지며 마음, 사랑, 생애, 사람이란 주제를 통해 그 답변을 찾아간다. 말걸터. 208쪽.



◇어떻게 지내요= 2018년 '친구' 로미 국도서상을 받은 시그리드 누네즈의 최신작.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두 여성의 우정을 통해 유한한 인생의 단면을 관조 하듯 그려낸다. 열리. 260쪽.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여성학자인 최희현 연세대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지난해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 부동산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여성들이 부동산에 몰두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여성 담론으로 분석한다. 창비. 308쪽.



전남대 비나리패의 문예운동

군부독재의 서늘이 퍼렇던 1980년대 초반에 창립한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장작 동아리 '비나리패'의 문예운동을 조명하는 '전남대 비나리패의 문예운동'(문학들 7)이 출간됐다.

저자 정명중은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 호

구원의 노래, 해방의 몸짓을 꿈꾸며

'비나리패' 1980년대 문예운동을 조명하다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 창작 동아리

남학연구원 및 호남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광주를 차츰 변혁을 꿈꾸는 민중들의 열망으로 들끓기 시작한다. 전남대학교 국문과의 몇몇 청년들은 그러한 열망에 예술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함을 직감한다.

민중들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비나리패'라는 문예운동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구원의 노래, 해방의 몸짓'을 기치로 내걸고 삶으로서의 예술 또는 운동(정치)으로서의 예술을 주장하며 한국문학의 토양에 만연한 반시대성을 맹렬히 고발한다.

이어 한국문학을 새롭게 양식화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한다. 당시로서는 꽤 전위적이고 의욕적인 목소리였다.

그러나 비나리패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다. 우선 1980년대 학생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던 청년문예운동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자체가 일천하며, 비나리패가 특정 학과 학생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아마추어 문예동아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 중심의 제도권 문단이 이들을 특별히 주목하거나 관심에 두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나리패는 1980년대 말까지 일종의 동인지집인 다섯 권의 '비나리글마당'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나리패와 80년대' 부분에서는 비나리패의 결성 과정, '비나리'라는 명칭의 의

미, 민요를 비롯한 전통예술에 대한 비나리패의 관심 등을 다뤘다.

이어 '비나리패의 실험들'에서는 구술성과 서사성에 대한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그들의 장시, 연작시, 공동창작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공동창작 실험을 통해 공통적인 것(the common)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근대 '이후'의 지평에 가닿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나리풍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한다고 생각되는 몇몇 경향성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양식화 작업의 방향'은 본격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그들이 내세웠던 '한국 문학의 새로운 양식화 작업'이 잠정적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사적 맥락을 소략하게나마 탐문한 것이다. /이연수 기자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주)금호주택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임대문의 062) 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